

여름철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 편집부 □

여름철 관리가 중요하다

금년은 예년보다 빨리 계란값이 하락하였다. 생산량도 증가하였지만 소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여름철에 계란이 썩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걱정하는 양계인들을 많이 보게된다.

일반적으로 계란값은 봄과 가을에 상승하는 소위 낙타의 등과 같은 두개의 큰 봉우리를 이루고 여름철에는 햇과일이 나오는 5월 중순부터 하락해서 7월말이 되어야 회복이 시작되어 추석전에 피크를 이루게 된다.

과거에는 이때 한밑천 잡아 일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전업화되면서 계란값이 좋을때 산란율을 높여야 수익이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84년도에 채란업계가 비교적 호황이었으므로 그간 초생추 입식이 늘어나 금년에는 소풍철에 오히려 계란값이 떨어지고 있어 육성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강제환우 등은 물론, 노계도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기에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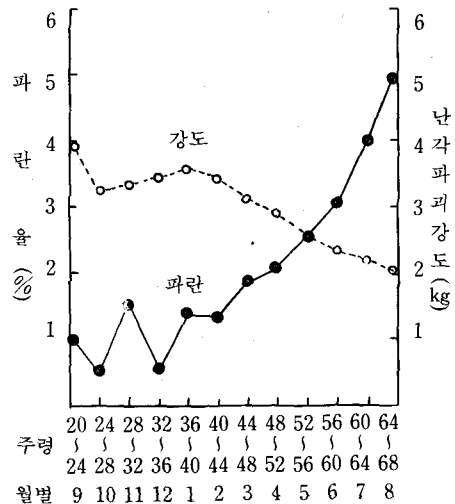
여하튼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산란율을 최대한 높이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길 밖에는 없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접어들게 된다. 닭은 겨울철 추위보다는 여름철 더위를 더 견디지 못하므로 사료섭취량이 감소되고 더위에 못이겨 소화도 잘 안되어 산란율이 떨어진다. 잘못하면 연란만 늘어나서 그 손실이 여름철 일시

적인데 그치는게 아니고 초가을 난가가 상승할 때까지 그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연·파란을 감소시키자

연파란의 발생은 표와 같이 계절과 닭의 일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가축학회(1978)

보통 여름철에는 일령이 높은 닭일수록(400일령 이상) 파란율은 5~6%에 달하고, 그 이상의 일령일 때에는 더 증가한다. 이는 노계일수록 대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무더위와 스트레스에 더 견디지 못하고 사료섭취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무더위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농장 전체의 연파란이 5% 이상이 될 때는 연파란을 많이 낳는 노계만이 아니고 초생추나 초산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 심각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산란초기의 닭들은 체중증가와 산란기능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닭에게는 무리가 되고 더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강하게 받게 된다. 일령이 어린 초산계가 받는 스트레스는 두고두고 계속되어 산란바람이 부는 가을철 알값이 좋을 때에 산란율이 오르지 않아 돈벌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될 수도 있다.

또 8주령 전후의 닭은 골격형성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가 폭염과 겹치게 되면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골격형성은 늦어져 허약한 닭이 되고 만다. 따라서 더위에 대한 대책은 산란 및 성장에 필요한 사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료를 충분히 먹이는 방법

닭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사료를 섭취시키는 데는 첫째 계사내의 통풍을 잘 시켜야 되고 계사내부의 공기가 탁해서는 안되며 계사내부가 항상 맑고 시원하게 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계사천정이나 벽면에도 단열재를 쓴다거나 계사주위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시원하게 해주거나 무더위가 계속 될 때에는 천정에 물을 뿌린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피서방법이다.

오후부터 석양햇살이 계사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부의 온도는 한없이 올라간다. 이런 때에 계사내의 공기와 계체를 직접 냉각시키는 계체에 분무하는 방법도 있다.

냉수를 계사내에 분무하면 수온에 의한 냉각이 되고 수분이 어느정도의 열기를 뺏게 되는 것이다. 밖의 온도가 30℃ 이상 되면 환기만 가지고는 더위를 막을 수 없지만 분무를 한 뒤 통풍을 시키면 계사내의 온도가 3~4℃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

대책의 두번째는 사료주는 방법이다. 닭의 체온은 사료를 섭취할 때가 체온이 제일 높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사료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때 주는 것이 좋고 한낮에 더울 때는 휴식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준 사료를 100% 섭취하도록 식욕증진과 소화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효소같은 것을 투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땀을 흘리지 못하는 닭은 무더위에 극도로 쇠약해져 있고 병에 걸리기도 쉽고 하여 이러한 때에 사용하는 비타민은 콕시둑증이나 호흡기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 E, K, B 등을 균형있게 배합해서 침전되지 않게 제제하여 안정성이 높은 액제로 그리고 닭전용의 수성액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